

부동산·경제 BUSINESS · REAL ESTATE

전 당 포

가주 최대 규모 / 최고 가격 보장 한인 최초 감정사 / 절대 비밀 보장 각종 명품, 귀금속, 시계

(714) 647-0005 / (714) 647-0007 318 W. 4th St., Santa Ana, CA 92701

"올해 만료되는 마일리지로 보너스 항공권 살 수 있다"

대한항공은 올해 유효기간 만료를 앞둔 마일리지로 내년 항공권 예매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12일 '이투데이'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이날 "내년부터 시작되는 일부 항공 마일리지의 소멸을 앞두고 아직까지 마일리지를 미처 사용하지 못한 고객들의 관심이 높아지 고 있다." 며 "그러나 당장이 아닌 내년 중에 사용할 항공 권이라도 미리 보너스 항공권을 예매해 놓으면 문제가 없 다." 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앞서 2006년 마일리지 유효기간 제도시행을 예고하고 2008년부터 도입한 바 있다. 2008년 7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적립된 미 사용 마일리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소멸된다. 이에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 마일리지를 통한 보너스 항공권 예약이 어려워지는 것이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다만 대한항공은 이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의 경우 현재 2019년 연간 전체 국제선 9만 7,000여 편의 항공편 중 95%에 이르는 9만2,000여 편의

항공편에서 보너스 항공권 예약이 가능하다. 또한 국내선 4만9,000여 편의 항공편 중 94%인 4만6,000여 편에서 보 너스 항공권 예약이 가능하다. 이 회사 관계자는 "조금만 서두르면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높 아진다는 의미" 라고 설명했다.

일반 항공권과 마찬가지로 마일리지로 끊는 보너스 항 공권은 1년 전 예약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올해 12월에 내년 12월 사용할 보너스 항공권을 끊을 수 있다는 것이 다. 만약 올해 말에 소멸되는 마일리지를 갖고 있는 사람 이라면,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내년 출발하는 보너스 항 공권을 예매하면 자연스럽게 소멸 예정인 마일리지를 활 용할 수 있다.

보너스 항공권의 경우 발권일부터 1년 간 유효하다. 단 유효기간은 연장되지 않는다. 일정을 변경하거나 목적지 를 변경할 경우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대한항공 관계 자는 "예약을 취소하지 않고 탑승하지 않을 경우 예약 부 도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이와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한 다." 고 설명했다.

미 콩 재고 역대 최대 ··· 중국 50만 t 구매

미국의 콩 재고량이 역대 최대 수준인 9억5,500만부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콩 수출량의 60%를 차지하는 중국이 무역전쟁의 여파로 콩 수입을 중단한 까닭이다.

중국은 미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면서 지난 7월부터 미국 산 콩에 2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후 콩 수입 이 감소해 중국 내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다. 11일 미 국 농무부에 따르면 중국의 9월 미국산 대두 수입액은 1년 전보다 98%나 줄었다.

양측이 무역전쟁으로 미국의 콩 재고가 늘어나는 가운 데, 중국이 미국산 대두 50만톤을 사들이기로 했다. 도널 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90일 휴전' 합의 이후 처음이다.

12일 CNBC에 따르면 중국 국영기업 시노그레인과 중

Diamond Bar

2 Car Attached Garage

3 Beds + 2.5 Baths 1,401 sq.ft.

*Association Pool & Spa *Water & Trash Included

*최고 학군

량집단은 이날 미국 대두 판매업체 카길로부터 대두 50만 톤을 1억8,000만 달러을 주고 매입했다. 한 트레이더는 "중국 국영기업들이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선적될 (대두를실은) 12개 화물을 구입했다." 며 "이제 다시 비즈니스가 시작되고 있다." 고 전했다. 그는 대두가 태평양 연안 북서부곡물터미널을 통해 선적돼 중국으로 수출될 것이라 내다봤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 역시 중국이 미국산 대두를 구매하고 있으며 자동차 관세도 내릴 것이라 언급한 바 있다.

CNBC는 "시작단계이긴 하지만 중국이 미국산 콩 대량 구매에 나선 것은 무역갈등이 완화되고 있다는 것" 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중국 영자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중국 항구에 대두가 도착했을 때, 효율적인 통관을 할 수 없다면 여전히 위험은 존재한다." 면서 미국이 90일간의 무역협상 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250 sq.ft. - Window Office

\$1,89 per sq.ft.

Plus Window 광고 하실 수 있습니다.

*MONUMENT SIGNAGE 있습니다.

*아주 저렴한가격

Gated Parking

애플, 텍사스 오스틴에 신사옥 건립

애플이 10억 달러를 투자해 텍사스 오스틴에 신사옥을 짓는다. 애플은 사옥 건립 이후 최대 1 만5,000명을 신규 고용할 예정이다.

14일 '아시아경제가 CNBC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애플은 이날 성명을 통해 오스틴 북부에 133에이커 규모의 사옥을 짓기로 했다고 밝혔다. 애플 본사는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에 있다.

애플은 이미 오스틴에 2곳의 대규모 사무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사옥은 기존 사무실에서 1.6 ㎞ 안쪽에 자리 잡을 예정이다. 신사옥 건립에 투입될 전체 10억 달러 중 4억5,000만 달러가 올해 투입되고 남은 자금은 향후 5년간 나눠서 사용된다.

애플은 신사옥을 짓고 직원 5,000명을 우선 고용한 뒤 최대 1만5,000명까지 점차 신규 채용 직원 수를 늘려나가기로 했다. 오스틴 사옥에는 엔지니어링과 연구개발(R&D), 재정 및 판매, 고객지원 분야 인력이 상주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애플은 시애틀과 샌디에이고, 컬버 시티 등 3곳에도 새로운 사무소를 열고 1,000명 이상의 인력을 고용하기로 했다. 또 아이오와주 워키에는 새로운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한 준비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기존에 있던 사무소인 피 츠버그와 뉴욕, 볼더, 보스턴, 포틀랜드 사무소 와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 네바다에 있는 데 이터 센터는 확대하기로 했다.

애플은 올해 미국 내에서 6,000명을 신규 고용했다면서 앞으로 2023년까지 2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성명에서 "미국 전역 도시에서의 새로운 투자와 일자리, 기회를 창출하는 것은 물론 오스틴과의 반세기에 걸친 파트너십을 더욱 심화하는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Fullerton (SFH) CUSTOM BUILT

4 Beds + 3 Baths / 2.900 sq.ft, 단독 / 7.980 lot

SUNNY HILL HIGH SCHOOL (MOTIVATED SELLER)

\$899,900

*2003 Built / NO HOA / NO MELLO ROOS TAX

부동산 마켓에 나오지 않은 집 삽니다

Fullerton (SFH) PANORAMIC VIEWS

6 Bed + 4 Full Bath / 4,227 sq.ft. / 20,165 sq.ft (Lot)

* SWIMMING POOL * 5 GATED PRIVATE PARKINGS

*CIRCULAR DRIVE WAY
*MINI TENNIS COURTS \$1,850,000

Tri-Freevey Business Pork

Anaheim: TRI-FREEWAY BUSINESS PARK (5, 91 Freeway Crossing)

ALL GROUND FLOOR
Office & Warehouse
RSF 700~3,500 sq.ft.
Rent: \$700~3,500 amt/mo
Term: 1-5 Years